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과 진리 이해

이 정 석

(신부, 전주가톨릭신학원)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1. 『교회 안의 성서 해석』 |
| II.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하느님의 말씀』 | 2. 『주님의 말씀』 |
| 1. 문헌의 성립과정 | 3. 『성경의 영감과 진리』 |
| 2. 계시: 공통된 하나의 원천 | IV. 하느님 말씀 해석의 실천적
적용과 제언 |
| 3. 진리의 문제: 성경의 무류성 | 1. 성서 해석학의 과제 |
| 4. 성서 해석의 원칙 | 2. 신학교육과 사목 |
| 5. 『하느님의 말씀』의 계시 이해의 특징 | 3. 성서와 영성생활 |
| III. 공의회 이후의 문헌들 | V. 나가는 말 |

국문 초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가톨릭 성서 해석학 뿐 아니라 가톨릭 신학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고는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가 새로운 계시 이해를 바탕으로 성서 해석학 분야에서 어떤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에서 강조되는 계시에 대한 인격적 이해를 바탕으로 가톨릭교회가 하느님의 계시와 관련된

* 편집자 주: 본고는 본대학 신학연구소가 주최한 제17회 학술발표회(2014.11.7)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4년도 본대학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음.

주제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공의회 당시 교부들 사이에 가장 큰 격론을 벌였음에도, 모든 교부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의 신학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과제를 남겼던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그것은 성경과 성전의 관계(9항)와 성경의 무류성(11항)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의회의 교부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토의하고 정리했는지 그 논의 과정을 뒤돌아보고 이후의 문헌들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계시에 대한 교의 현장 『하느님의 말씀』과 공의회 이후의 교회 공식 문헌들이 본고의 주요 대상이다. 본고에서는 공의회 이후의 주요 문헌들 중 특히 『교회 안의 성서 해석』(1993), 『주님의 말씀』(2010), 『성경의 영감과 진리』(2014)를 검토한다. 이 문헌들의 통시적 연구는, 이 문헌들을 통해 교회가 공의회의 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이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밝혀주고, 동시에 공의회가 지향하는 성서 해석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계시에 대한 교의 현장이 주로 교의신학자들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고 교부들의 동의를 얻은 반면, 교황 권고인 『주님의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들은 성서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성서위원회의 연구성과들이다. 따라서 문헌의 성격 역시 주로 성서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성경 본문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교회의 공식문헌들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성서 신학적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여 계시에 대한 교회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의 기준들을 토대로 성서 해석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의 해석자인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생생한 전승의 전달자요 봉사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모색한다.

주제어: 가톨릭, 해석학,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현장, 성전, 무류성, 교황청 성서위원회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과 진리 이해’를 다룬다. 그리스

도교 성서 해석학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한 학자들은 주로 독일 개신교회 소속의 신학자들이었다. 가톨릭교회는 서방 교회의 분열 이후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도전에 맞서 사도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이성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성경을 파헤치는 듯한 성서 해석에 대해 의심을 쉽게 거두지 못했으며, 19세기 말에 와서야 비로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성서 해석학’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목이 나타내듯, 성서 해석의 주체를 ‘가톨릭교회’로 제한했으니, 본고는 지금까지 가톨릭교회의 공식 가르침들 안에서 교회의 성서 해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을 펴기보다는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선포하고 증언하는가에 논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제12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약칭, ‘시노드’ Synodus) 후속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19항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신학적 고찰에서는 분명 영감과 진리를 교회의 성경 해석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거룩한 본문을 그 본성에 따라 해석하기 위한 요구들에 더 잘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실재들에 대하여 적절히 더 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영역의 연구가 발전하고 성서학과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위하여 결실을 맺기를 열렬히 희망합니다.¹⁾

이 항목은 교황청 성서위원회의 최근 문헌인 『성경의 영감과 진리』(*Inspirazione e Verità della Sacra Scrittura*) 1항에서 인용되었다. 위원회는 교황의 원의에 응답하여 영감과 진리의 개념을 더욱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성경의 성격과 교회의 삶을 위한 성

1) 베네딕토 16세,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19항. 관례에 따라 교회 문헌들은 번역서의 페이지가 아니라 각 문헌의 고유번호 곧 항 번호를 인용문에 사용한다. 문헌의 출판본 쪽을 가리킬 때는 쪽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만 기입한다.

경의 의미에 아주 훌륭하게 응답하고자 한다.²⁾ 그리고 그 결실로서 이 문헌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 위원장인 신앙교리성 장관 뮐러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머리말에 제시하고 있다.

성서위원회의 본 문헌은 논제에 대한 교회 교도권의 공식 선언이 아니다. 영감과 성경의 진리에 관한 완벽한 교의를 제시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성경 본문들이 하느님에게서 기원한다는 것과, 진리에 관한 주의 깊은 주석 연구의 결과들을 언급할 뿐이다. 이제 고유한 관점에 따라 완성되고 심화되도록 다른 신학 과목들에 문헌의 결론들을 내놓는다.³⁾

어떤 의미에서 이 문헌은 앞선 『주님의 말씀』에서 미처 자세히 다루지 못한 ‘영감과 진리’에 대한 교도적 가르침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의 신학적 결과물이다. 이 문제는 제12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교부들이 제시한 건의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건의문 제12항은 다음과 같다.

시노드[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신앙교리성이 성경의 영감과 진리 개념에 대해, 『하느님의 말씀』 11항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이 분야에서 가톨릭 성서 해석학의 독창성을 부각시킴이 필요하다.⁴⁾

2) 교황청 성서위원회, 『성경의 영감과 진리』(*Ispirazione e Verità della Sacra Scrittura*), 박영식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1항 참조; 추측하건대, 교황은 이미 성서위원회가 ‘성경의 영감과 진리’에 관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이 주제에 대해 최대한 절제했을 것이다. 이는 2009년 4월 23일 성서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알현 때 한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러분은 성경의 영감과 진리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심화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그것은 신학 뿐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삶과 사명은 필연적으로 신학의 영혼이자, 더불어, 그리스도교적 실존 전체에 영감을 불어 넣는 하느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주제는, 더 나아가, 특별히 제 마음에 자리한 우려에 부응합니다. 왜냐면, 성경의 영감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의 삶을 향해 으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Benedictus PP. XVI, “Ad Plenariam Sessionem Pontificiae Commissionis Biblicae(2009.4.23)”, AAS 101, 2009, 378.

3) 『성경의 영감과 진리』, 13.

4) Sinodo dei Vescovi, “XII Assemblea generale ordinaria: Elenco finale delle proposizioni”,

사실 이 문제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이 나오기까지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교부들의 세 가지 논제⁵⁾ 중의 핵심 사항들이기도 하다. 제4회기 동안의 토론 중에 바오로 6세 자신도 신학위원회에 수정 제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세 가지 주제는 ① 성서와 성전의 관계(9항) ② 성서의 무류성(11항) ③ 복음서들의 역사성(19항)이다.

논쟁이 심했던 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는 얻기 힘들었다. 『성경의 영감과 진리』가 천착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논쟁의 시발점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문헌들과 가르침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시노드의 교부들이 주지하고 있는 대로, 가톨릭 성서 해석학의 독창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의 공식 문헌은 교도권의 가르침을 담은 공의회와 교황 문헌 그리고 성서 해석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인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발표한 문헌들로 구분할 수 있다. 베네딕토 16세는 『주님의 말씀』 3항에서 바티칸 공의회 의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하느님의 말씀』 이전과 그 이후에 나온 주요 문헌들의 목록을 각각 각주 3과 각주 8에서 제시하고 있다.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성경 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기 위한 개입”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는 문헌들이지만,⁶⁾ 본고에서는 현대

http://www.vatican.va/roman_curia/synod/documents/rc_synod_doc_20081025_elenco-prop-finali_it.html (검색일: 2014.10.5).

- 5) G. Caprille, “Tre emendamenti allo schema sulla rivelazione: appunti per la storia del testo”, *La Civiltà cattolica* 117/I, 1966, 214는 공의회 의 마지막 제4회기에서 교부들이 최종 논의하게 될 이른바 ‘수정본문’(textus emendatus)이 공의회 의 교부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과 1965년 최종 문헌이 나오기까지의 공의회 진행을 간략히 소개 한다. 좀 더 자세한 계시 현장 성립의 역사는 H. Kruse 외, “계시 현장”, 『공의회 문헌해설총서』 3, H.V. 스트라렌 외 편, 현석호 역, 성바오로출판사, 1991, 207-210 참조.
- 6) 이런 면에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1편 1부 참조. 특히 50-141항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다.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헌장인 『하느님의 말씀』의 성립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공의회 이후의 문헌들인 『교회 내의 성서 해석』(1993), 『주님의 말씀』(2010), 『성경의 영감과 진리』(2014)를 주로 다룰 것이다.

II.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

1. 문헌의 성립과정

‘계시 헌장’이라고도 부르는 이 문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중에서 -특히 다른 세 개의 헌장과 비교해서- 매우 짧은 문헌이지만, 다른 어떤 문헌보다 어렵고 지난한 형성 과정을 거쳐 발표되었다. 논쟁의 가장 큰 원인은 에큐메니컬적인 성격을 지닌다. 곧 비가톨릭 진영을 비롯한 성서학계의 견해, 현대 성서 해석학이 내놓는 결과들에 대한 수용과 자세에 대한 태도, 서로 다른 신앙 전통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수용 등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요한 23세는 오파비아니(Ottaviani)와 베아(Bea) 추기경이 이끄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에 그리스도교 일치 사무국(Segretariato per l'unione dei cristiani)의 임원들과 자문위원들 출신의 교부들을 포함시켜 다른 신앙 전통에 속한 교회나 공동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했다.⁷⁾

7) 베아 추기경은 이 일을 두고 “공의회에서 대다수는 새로운 의안을 바랐다. 그러나 [새로운 의안을 작성하는 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인 2/3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교황이 관여하여,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의안을 제안할 혼합 위원회를 임명했다. 하지만 최대한 신중한 태도로 특별 위원회가 공의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들을 모두 반영하도록 배려했다. 회의 진행 규정의 문구들을 깨뜨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공의회의 교부들이 자유롭게 기나긴 토론을 거듭한 뒤에라야 그렇게 행동했고, 보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효력을 내도록 개입했다”라고 회고했다: A. Bea, *Unità nella libertà: riflessione sulla famiglia umana*, Brescia: Morcelliana, 1965, 66을 G. Caprile, 앞의

최종 문헌은 1965년 11월 18일의 공개 회의에서 현장 전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승인되고 반포되었다(찬성 2,344, 반대 6). 제4회기 동안 총 20회의 투표를 통해 제3회기 마지막에 제출되었던 ‘수정 본문’(1964)이 다시 수정되어 제5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각 장에 대한 표결은 다음과 같다.⁸⁾

	찬성	반대	무효
서문과 제1장 (계시 그 자체)	2,169	23	2
제2장 (하느님 계시의 전달)	2,123	55	7
제3장 (성서의 영감과 해석)	2,154	31	4
제4장 (구약 성서)	2,178	8	2
제5장 (신약 성서)	2,115	19	5
제6장 (교회의 생활 안에서의 성서)	2,126	14	6

이 결과는 현장의 1,2,3장 그리고 5장에 여전히 반대 의견이 몰려 있음을 보여준다. 공의회의 다양한 토론과 협의가 교부들의 완전한 동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음을 의미할 뿐더러, 논쟁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깔끔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겼음을 의미한다.⁹⁾ 비록 신학적인 면에서 모든 교부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

책, 215 각주 1에서 재인용.

- 8) H. Kruse 외, 앞의 책, 209-210 참조; 각 장의 제목은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번역본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라틴어 대역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332-333을 따랐다.
- 9) H. Kruse 외, 앞의 책, 210은 냉철하게 다음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복잡한 성립과정은 현장 안에서도 그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그 내용과 사고의 도정에는 때로는 논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용의 반복이 많고, 몇 개의 중대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P. Grech, “해석학”, 『새로운 성경신학 사전』 3, P. 로싸노 외 편, 바오로딸, 2011, 2477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성경해석학이 큰 발전을 이루고 폭넓은 개방을 띠게 되었지만, 계시 현장은 ‘언어’와 관련된 해석학적 문제는 놓아둔 채 엄격한 성경주석에 필요한 원칙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 이후로 가톨릭 성경 해석의 비약적 발전에 물꼬를 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업적은 결코 그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성서학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계시와 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 가시적 결과가

하지 못하고 모호한 표현들을 남겨 둔 채로 문헌이 정리되었지만, 사목적 성격을 지향한 공의회와 근본 취지에 비추어 일반 신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교회 내에서 성경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역할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가치는 인정되어야 한다.¹⁰⁾

2. 계시: 공통된 하나의 원천

『하느님의 말씀』 12항은 성서 해석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하느님께서는 성서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서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서 저자들이[hagiographi]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성서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은 ‘자의적 의미’(sensus literalis)다. 성서 해석학의 일차적 목표는 본문을 통해 성서의 저자들이 전달하고자한 바, 그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교회는 해석의 대상인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 저자들이 뜻하고자 한 바,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을 연구하는 것을 성서 해석학의 연구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공의회의 인격적 계시이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이 구절은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이어서 불 교회의 문헌들이다.

- 10) 안소근,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성경 해석”, 『사목연구』 30, 2012, 28-29은 『계시 현장』이 19세기 이래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 특히 역사비평적인 연구가 발전하게 되고 이를 교회가 수용해가는 과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야기한다. 더 이상 하느님은 계시의 대상이 아니라 계시의 주체다. 계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공의회와 다른 주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계시사건의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다.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셨고,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을 부르신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교회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교회는 먼저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하느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귀를 기울여야한다.

공의회와 교부들이 이전의 계시 이해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첫 번째 의안이었던 “계시의 원천들에 대하여”(De fontibus revelationis)에 62%에 달하는 반대표를 던졌던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¹¹⁾ 복수형태의 ‘원천들’(fontibus)이라는 표현은 분명 계시의 두 원천인 ‘성서와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성전에 대해서 다른 신학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개신교를 의식한 결정은 후에 『하느님의 말씀』 9항을 둘러싼 논쟁으로 절정에 달한다. 제3회기의 막바지에 가서야 공의회 교부들에게 제출되는 바람에, 다음 해인 1965년에 열린 제4회기에서 심의와 표결이 되었던 수정안의 최초본문은 교부들의 제안과 결정에 따라 “따라서 교회는 오로지 성서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quo fit ut Ecclesia certitudinem suam de omnibus revelatis non per solam Sacram Scripturam hauriat)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종 문헌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 나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성서는 성령의 감도로 기록되었으므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은 성전으로 그들

11) 참조: J. Wicks, “Dalla Dei Verbum al sinodo sulla parola di Dio: Verbum Domini n. 3”, *Commento alla Verbum Domini*, a cura di V.C. Aparicio, S. Pié-Ninot, Roma: GBP, 2011, 37; 본고의 각주 7번.

의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데, 후계자들은 진리의 성령에게서 빛을 받아 자신의 설교로 그 말씀을 충실하게 보존하고 해설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오로지 성서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 둘을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써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한다(9항).

1965년 9월 21일 9항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2,214명, 반대 34명의 결과가 나오지만, 2장 전체에 대한 투표에서는 354명의 교부들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그중 111명이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오직) 성서에 의해 (직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보충하기를 제안한다. 다른 세 명의 교부들은 이와 거의 유사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다만 성서와 성전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의 교도권에 대해서 다루는 10항의 마지막을 보강하자는 안이었다.

이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소위원회는 수차례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 수정을 거쳐 10월 1,4,6일에 열린 신학위원회 총회에 제출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뒤엉켜 과열되기에 이른다. 위원회에는 사실상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공존했다. 한편에서는 바오로 6세의 1964년 11월 21일 제3차 회기 폐막연설을 근거로 교황이 언급한 ‘의구심들’을 이참에 말끔히 해소하기를 바랐지만, 다른 이들은 그 당시의 현장 전문(수정본)이 공의회에 많은 교부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 더 이상 신학위원회가 수정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논점은 결국 성서가 모든 계시를 항목화(codification)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다른 한편 성전 역시 성서 책들의 정경 확정에 대한 것 외에 성서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충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다. 성전의 성격을 단순히 성서에 대한 ‘해석적’ 기능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성서와 더불어 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결국 교황의 적극적인 개

입으로 성전에 관한 공의회가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보완할 7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한 투표를 거쳐 최종 문안이 확정되었다.¹²⁾

16세기 서방 교회의 종교분열 이래로 개신교는 ‘오직 성서만으로’(sola scriptura)라는 구호를 내걸고 계시의 범위를 기록된 성서만으로 제한했다. 가톨릭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6년 교령을 통해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에도 구원의 진리와 윤리 규범이 보존되어 있음을 천명했다.

사실 이 복음은 과거에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서,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의 입으로 공포하였으며, 후에 당신의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구원의 진리와 윤리 규범의 원천으로서[tamquam fontem omnis et salutaris veritatis et morum disciplinae]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본 공의회는 이 진리와 규범이, 기록된 책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 사도들로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아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안에도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 가지 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저자이시기에, 그 모든 책들을 똑같은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한다(DH 1501).¹³⁾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결정사항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거룩한 트레نت 공의회에서 선포된 보편 교회의 믿음에 따르면, 이러한 초자연적 계시는 기록된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전승에 담겨 있는데, 이 전승은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부터 나와 사도들에 의해 수용되었거나 성령의 영감에 의해 그 사도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수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다(DH 3006).¹⁴⁾

12) 참조: G. Caprille, 앞의 책, 216-223; H. Kruse 외, 앞의 책, 257-258.

13) G. Alberigo 외 편,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트레نت 공의회·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손희송·이경상 역, 가톨릭출판사, 2013, 663.

14) 같은 책, 806.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피했던 ‘원천’이라는 용어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복음을 가리켜 ‘구원의 진리와 윤리규범의 원천’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공의회는 이러한 진리와 규범이 성경과 성전 모두에 보존되어 있음을 고백한다. 반면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것을 ‘초자연적 계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성주의에 대응해 열린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를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로 구분하는데, 자연적 계시는 창조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알게 해준다(DH 3004 참조). 인간 정신의 모든 인지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신적 복락에 인간이 참여하게 하려면 초자연적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 이성 자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적인 것들을 인간의 현실 조건에서 쉽게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오류 없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신적 계시 덕분이다(DH 3005 참조).

이후 ‘성경과 성전’은 공공연히 ‘계시의 두 원천’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는데, 필자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언제, 어떤 근거로 사용되었는지는 찾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다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첫 번째 의안의 제목이었던 ‘계시의 원천들’이라는 표현은 분명 성경과 성전을 가리키는 것임은 확실하다. 『하느님의 말씀』의 최종 본문은 단 두 번 ‘fons’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7항, 21항 참조)¹⁵⁾ 명시적으로 계시의 원천으로서 성경과 성전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9항에서 성전과 성서가 ‘동일한 신적 원천’(ex eadem divina scaturiginem)에서 솟아 나옴을 말할 뿐이다.¹⁶⁾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 쾰른교구장 프링스 추기경의 ‘개인 조사관’ 자격으로 로마에 도착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 라칭거(J. Ratzinger)는 공의회 개막 하루 전날, 폴레지오 디 산타 마리아 델라니마(Collegio di Santa Maria dell'Anima)에서, 프링스 추기경의 요청에 따라 준비 위원회에

15) 7항은 위에서 인용한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을 인용하면서, 21항에서는 영성생활의 원천인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16) H. Kruse 외, 앞의 책, 249는 유럽의 언어에서 ‘샘’이라고 말하면 ‘자료’를 연상하기 때문에 ‘fons’가 아니라 ‘scaturigo’를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 미리 배포했던 “계시의 원천들에 대하여”(De Fontibus Revelationis)에 대해 독일 주교단을 대상으로 논평을 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계시는 성서나 성전 다음에 오는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성서와 성전을 배양하는 유일한 원천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의 모든 역사적 정식[定式]들보다도 먼저 오는 하느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입니다.¹⁷⁾

라칭거에 의하면 공의회는 이 초안은 그 제목부터가 문제였던 것이다. ‘계시의 두 원천’이라는 표현이 비록 당시의 신학 교과서에서 성서와 성전을 가리키는 흔한 정의였지만, 계시와 그 전달의 존재론적 순서가 뒤바뀐 엉뚱한 표현이었다. 제목만이 아니었다. 그가 보기에 당시의 초안의 작성자들은 ‘근대주의의 망령’에 눈이 멀고, ‘sola scriptura’라는 개신교의 원칙을 반박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성전을 마치 성서 밖에 알려진 선언들의 모음집 정도로 치부하는” 온갖 사유들은 이미 교부들에 의해서 영지주의적인 것으로 거부되었고, 결국 그리스도 교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¹⁸⁾ 그러므로 성경과 성전은 계시의 두 원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원천에서 신적 영감이 전달되는 두 개의 통로라고 규정함이 옳다.

1992년 10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 『신앙의 유산』(Fidei Depositum)을 통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발간한다.¹⁹⁾ 이 교리서는 1985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임시총회의 교부들이 건의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가톨릭 교리를 망라하는 교리서나 그 개요서의 편찬’ 건의에 따라 ‘신앙의 살아 있는 원천에서 새로워진 교리 교육을 위한 규범서’로 제시된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항

17) G. Valente, “Modificare la bozza sulla divina Rivelazione”, *La Stampa: Vatican Insider*, <http://vaticaninsider.lastampa.it/inchieste-ed-interviste/dettaglio-articolo/articolo/concilio-18768/>(검색일: 2014.10.12).

18) 같은 자료 참조.

19) 최초의 교리서는 프랑스어로 출간되었고, 라틴어 표준판의 승인과 공포는 5년 뒤인 1997년 8월 15일 교황 교서 『큰 기쁨』(Laetamur Magnopere)을 통해 이루어졌다.

은 다음과 같이 ‘사도 전승’과 ‘교회 전승들’을 구분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聖傳)은 사도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제1세대에게는 아직 기록된 신약성서가 없었으며, 신약성서 자체가 살아 있는 ‘성전’의 과정을 증언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 교회에서 생겨난 신학적, 생활 규범적, 전례적 또는 신심에 관한 ‘전승들’은 사도 전승과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전승들은 독특한 양식들을 이루게 되는데, ‘성전’은 다양한 장소와 시대에 따라 적용된 여러 표현들을 이러한 양식 안에 수용한다. 이 전승들은 교회 교도권의 지도 아래 ‘성전’에 비추어 보존되거나 수정되거나 또는 폐기될 수 있다.

교리서는 공의회가 가르치는 개념들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혼용되어온 성전의 개념을 바로잡는다. ‘사도들의 설교’로 표현했던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성전의 지위와 개념을 더욱 확실히 정리하고 그와는 구별되는 교회의 전통들을 구분함으로써, 구별 없이 통용되던 표현의 모호함이 좀 더 분명해졌다.

3. 진리의 문제: 성경의 무류성

『하느님의 말씀』 성립에 다른 쟁점 중의 하나는 성경의 무류성(無謬性, inerrancy)과 관련이 있다. 1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영감 받은 저자들[auctores inspirati], 또는 성서 저자들이[hagiographi] 주장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성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서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를 확고하고 성실하게 그르침이 없이 가르친다고 고백해야 한다.

성경의 무류성에 대한 바탕에는 하느님이 진실하시니 그분의 말씀인 성경 역시 거짓이 없다는 신앙진술이 깔려 있다. 인용한 11항

의 앞 단락에서는 교회가 사도의 신앙에 따라 성서 전체와 그 각 부분을 거룩한 것으로 또 정경으로 여기는 이유가 그 신적 기원에 있음을 재확인했다.²⁰⁾ 다음으로 성서의 저자(auctor)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어 “그들 안에 또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어(in illis et per illos agente)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다”라고 선언한다. 저자 문제에 있어서도 공의회는 오직 하느님만이 참저자(auctor)이심을 강조한다.²¹⁾ 다만 초자연적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 인간 기록자들(hagiographi)을 필요로 하셨다. 이들을 가리켜 auctores라고 칭할 때는 ‘영감받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영감’은 한정된 성경의 무류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미 7,8,9항에서도 성경과 영감을 다루지만, 제3장은(11-13항) 전체가 영감과 그 해석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다.

앞서 인용한 현장의 최초 초안은 하느님이 성서의 저자라는 사실에서 “성서의 전체나 각 부분이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영감에 의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므로 성서저자가 주장하는 모든 사항은 성령의 주장이라고 믿어야 한다.”²²⁾라고 작성되었다. 성경의 무류성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성령의 영감이 성경의 무류성을 보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성경이 오류없이 진술하는 진술의 외연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였다. 곧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교회는 한결같이 성서의 내용을 신앙과 도덕에 국한시키려는 시도들에 대해 거부했다.²³⁾ 회기가 거듭하는 동안 본문은 여러

20) 현장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하느님의 아드님』 2장(DH 3006); 성서위원회 교령(DH 3629); 『성서총람』(EB 420, 499) 등 앞선 교회의 가르침을 각주로 제시한다.

21) 이 개념에 대해서는 H. Kruse 외, 앞의 책, 269-275 참조.

22) Schema I, 13, n.11을 H. Kruse 외, 앞의 책, 277에서 재인용.

23) 레오 13세, 『섭리의 하느님』은 “어떤 대목의 분명한 의미가 여전히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고, 해석의 훌륭한 규칙들은 그것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신적 영감이 신앙과 관습에 관한 것이고, 그 외의 어떤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늠기 위해 성서 구절들의 참된 의미들을 대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용인

차례 수정을 거듭했고, 최종 ‘수정본문’(textus emendatus)과 문헌의 최종본문도 큰 차이를 드러낸다. 워낙 복잡한 변천사를 거쳤으므로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최종 신학위원회의 논쟁이 진행과 결과가 매우 석연치 않았다는 사실만을 밝혀둔다.²⁴⁾ 단순히 종합하자면, 좀처럼 의견의 일치를 이뤄내지 못했던 신학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가결 정족수 중 단 한 표가 모자라서 초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다가, 여러 수정과 표결을 반복하던 중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고, 총회는 이 안건을 승인했다. 결과가 석연치 않았다는 것은 라틴어 본문의 해석상에 애매한 표현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최종 본문은 “성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서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를 확고하고 성실하게 가르침이 없이 가르친다고 고백해야 한다”(quam Deus nostrae salutis causa Litteris Sacris consignari voluit, firmiter, fideliter et sine errore docere profitendi sunt)이다. 제4회기 초반의 총회(1965.9.21)에서는 “nostrae salutis causa” 대신 “veritatem salutarem”이라는 문구가 적힌 수정본문을 심의했다. 총회는 찬성 1,777명, 수정 후 찬성 324명, 반대 6명, 기권 2명의 결과를 얻는다. 수정 후 찬성 의견을 낸 교부들은 ‘salutarem’이라는 어구 때문에 성경의 무류성이 ‘신앙, 도덕의 사항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바로로 6세 역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는데, 교황 스스로도 성경의 무류성을 상대화시키는 이 어구를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보았다. 교황은 ‘성경과 성전’에 관한 논쟁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성서 신학적 가르침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되지 않는다”(DH 3291)라고 선언했다; Schema I, 13: “세속적인 성서 진술도 영감에 의한 것으로 오류에서 제외된다”(respuat errorem omnem in qualibet re religiosa vel profana); Schema II, 9: “성서 전체는…절대로 가르침이 없음이 추론된다”(Totam Scripturam…ab omni prosus errore immunem esse consequitur)는 문구들은 공의회가 열리던 시대까지의 전반적인 신학의 흐름을 보여준다.

- 24) H. Kruse 외, 앞의 책, 279-283 참조; 더불어 최종 본회의의 표결을 위한 초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신학위원회 사이에 불거졌던 소란에 대해서는 G. Caprille, 앞의 책, 223-227 참조.

있는 주제였고, 한편으로는 아직 공의회 회의장에서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친 정식(定式)이 아닌 듯 보이기도 했으며,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이 정식이 불순한 해석의 위험으로부터 매끄럽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²⁵⁾ 우여곡절 끝에²⁶⁾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본문은 ‘causa’가 ‘Deus’를 서술하는 주격(nominative)으로도(‘우리 구원의 원인인신 하느님’), 혹은 탈격(奪格, ablative)로도(‘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을 목적으로’) 해석 가능한 어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위원회에서 반대 진영에 서 있던 교부들이나 총회에서 수정을 요구했던 교부들을 ‘내용상의 제한이 아니고 형용사적 서술에 불과하다’는 설득한 끝에 어렵사리 이 문헌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H. Kruse와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이 결정을 평가한다.

신학위원회의 공식 설명에 따라 계시 현장 주해자의 태반이 이 문장은 결코 영감을(또는 무류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옳으며, ‘만’이라는 말도 본문에는 없다. 따라서 적어도 ‘구원에 관한 사항’은 잘못 없이 성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어떤 종류의 사항도 무류(無謬)하기는 하지만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런 호교적 태도는 어떤 회피의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본문에 ‘구원과 관계없는 범위’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인정하는 편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장이거나 이제까지의 교도직의 공문서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장 아니, 현장 전체의 의의가 여기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야 공의회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용기를 보인 것이다.²⁷⁾

4. 성서 해석의 원칙

공의회는 『하느님의 말씀』 12항에서 하느님께서 성서 저자들의 말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연구하기 위해 문학 유형들을 고려할 것과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저술 당

25) G. Caprille, 앞의 책, 226 참조.

26) 같은 책, 226-227 참조.

27) H. Kruse 외, 앞의 책, 282-283.

시의 지역적 특색, 사고, 언어, 설명, 상호 교류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들을 면밀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 『성령의 영감』의 기초를 재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분명한 해석의 원칙을²⁸⁾ 제시한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쓰여진 성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성서 본문들의 뜻을 올바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과 신앙의 유비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성서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5. 『하느님의 말씀』의 계시 이해의 특징

한민택은 『하느님의 말씀』이 지니는 계시 이해의 세 가지 특징을 ‘하느님 자신의 행위인 계시’, ‘구원 역사 안에서의 경륜적 이해’,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정리하면서, 비로소 고전 호교론의 외부주의적 성향 혹은 이분법적 전망을 사라지게 했다고 평가한다.²⁹⁾ 이러한 특징은 비단 계시에 대한 교의 현장뿐 아니라, 교회와 현대 세계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회회의 전체의 성격과 성과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28) 『하느님의 말씀』 12항에서 제시하는 이 원칙은 이후 교회 문헌들에서 꾸준히 재확인되고 심화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114 참조; 『하느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해석의 원칙에 관한 간략한 서술에 대해서는 안소근,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성경 해석”, 38-42 참조; 다소 어려운 표현인 ‘신앙의 유비’(analogia fidei) 개념은 안소근, “신앙의 유비”, 『가톨릭 신학과 사상』 72, 2013, 140-176 참조.

29) 참조: 한민택, “‘신앙의 합리성’ 연구에 있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현장』의 기여”, 『이성과 신앙』 53, 2012, 34-36; 역시 같은 차원에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회의 계시 이해를 각각, “명제적 이해”와 “인격적 이해”로 구분한다. 안소근,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성경 해석”, 32; J. Wicks, 앞의 책, 38.

III. 공의회 이후의 문헌들

1. 『교회 안의 성서 해석』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섭리의 하느님』(*Providentissimus Deus*, 1893) 발표 100주년, 비오 12세의 『성령의 영감』(*Divino afflante Spiritu*, 1943) 5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안의 성서 해석』(*L'interpretation Des Textes*, 1993)을 발표하였다. 이 문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도권’의 기구에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거듭난³⁰⁾ 이후 위원회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문헌은 공의회의 난제였던 ‘영감’의 신학에 대해 입장 표명을 취하지 않는다.³¹⁾ 이 문헌의 목적은 그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에 관한 지침서의 성격을 지닌다. 문헌은 보다 전문적인 용어인 ‘주석’(exegesis), 혹은 ‘해석학’(hermeneutics)이라는 용어대신 훨씬 일반적이고 넓은 뜻을 지닌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을 택했다.³²⁾ 또한 ‘교회 안의’라는 수식어로 ‘교회 외부의’ 순수한 학문적 목적의 성서 해석과 선을 그었다. 성경은 우선적으로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선사’된 하느님

30) K. Stock, “I cento anni della Pontificia Commissione Biblica”,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pcb_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21030_stock_it.html (검색일: 2014.10.5); 바오로 6세는 자의 교서 *Sedula cura*(AAS 63, 1971, 665-669)를 통해 기존의 Commissio Pontificia de Re Biblica를 전문가 중심의 교황청 성서위원회(Pontificia Commissione Biblica)로 개정하고,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15개의 규범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위원회의 지위는 2년 먼저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제안에 따라 바오로 6세가 설립한(1969.4.11) ‘신학위원회’와 유사하다.

31) 교황청 성서위원회, “교회 안의 성서 해석”,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 정태현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204 참조.

32) ‘성경저자가 동시대의 독자에게 말하고자 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성경본문을 분석하는 주석(註釋, exegesis)’과 ‘동일한 성경본문이 현재 전혀 다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분석하는 해석학(hermeneutics)’을 구분한다. 이에 비해 interpretation은 해설, 번역 등을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설명’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P. Grech, 앞의 책, 2439 참조.

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문헌이 그러한 세속의 학문적 노력과 결과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레오 13세 이래 특히 가톨릭 성서 해석학의 대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영감』이 장려하고 있는 바, 성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지역에 관한 언어, 역사, 문학 등에 관한 학문적 성과와 고고학 등의 도움을 꾸준히 장려하고, 더 나아가 성서 해석학 분야의 여러 가지 방법론과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이어서 철학적 해석학의 최근 성과와 성서 해석학이 직면한 도전들을 요약하고, 동시에 성서 해석학이 대상으로 하는 해석대상으로서의 ‘구원사건’들의 고유한 특성을 지적한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신앙과 성령의 빛’과 같은 특별한 선명제들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다. 그래서 성서 해석학이 지향하는 바, 해석의 대상을 ‘성서의 다양한 의미’로 소개한다(II. 나. 영감받은 성서의 의미).³³⁾ 이것은 교부 시대로부터 정리되어 온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시금 세 가지로 -자구적 의미, 영성적 의미, 더욱 충만한 의미- 정리한 것으로서 본문이 단순히 하나의 고정된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역사 비평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문헌의 전반부(I. 해석을 위한 방법과 접근, II. 해석학 문제들)는 ‘『하느님의 말씀』 12항이 가리키는 바에 대한 실현과 발전’³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헌은 방법론(method)과 접근 방식(approach)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다만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해석 방법을 장려할 뿐이다. 해석학적 방법과 접근을 구별하는데, 그 기준은 모호할 수 있지만 굳이 방법론적 차이점을 구별하자면, 역사비평과 문학비평으로 대표되는 방법론은 본문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본질을 철저히 분석·탐구하고 그 결과를 엄밀히 체계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역사비평은 통시적 분석을 문학 비평은

33) 『성령의 영감』 23-27항, 31-32항 참조.

34) G. Rizzi, *Leggere la Bibbia con la Tradizione*, Bologna: EDB, 1999, 23 참조.

본문, 특히 최종형태의 본문의 구조적, 문학적 특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다. 접근은 유다-그리스도교 문화와 역사 속에서 본문의 형성과정과 읽기 수행과 해설의 현상학적 분석 태도를 통칭한다. 때로 이러한 태도는 본문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현대 인문학과 성경의 만남, 혹은 성경을 이용한 역사적 움직임의 소개하면서 성경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읽히고 재해석되어 왔는지를 소개한다.

이어서 문헌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특성들을 나열한다(Ⅲ. 가톨릭 해석의 특징). 그 특징들에 대해 문헌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개념은 ‘전통’이다. 이는 다시 ‘성서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구분하는데, 이때 전통이라는 개념은 이미 『하느님의 말씀』 9항에서 논란이 되었던 ‘성전’(聖傳)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13항에서 천명한 성서 해석의 원칙들을 보충한다. 이 원칙들은 다시 베네딕토 16세의 『주님의 말씀』 제1부에서 더욱 강조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헌의 ‘Ⅲ. 가톨릭 해석의 특징’은 『하느님의 말씀』 12항의 세 원칙 곧 성령을 통해 쓰여진 성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 내용과 일체성, 전체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 신앙의 유비(類比; analogia fidei)를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 원칙과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 1부를(특히 34항) 이어주는 다리 구실을 한다. 공의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아직 ‘역사-비평적 방법론’이 맹위를 떨치는 시기였으나, 점차 이런 비평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본문과 독자와의 관계에 새로운 이해 지평을 연 현대 해석학의 발전에 힘입어, 오히려 본문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서의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진 것이다. 더불어 공의회가 말끔히 풀지 못하고 모호하게 남겨둔 ‘성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계시에 있어서의 그 위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교회의 공식 문헌들을 통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 안에서의 해석은 해석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삶 속에서 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적용까지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러므로 문헌의 관심은 교회의 삶 속에서 ‘성서 해석’의 적용과 토착화의 문제에까지 이른다(IV. 교회 생활 안의 성서 해석). 이 두 번째 부분 역시 『하느님의 말씀』 14-55항이 제시하는 가르침의 발전적이며 세밀한 반영이기도 하다.³⁵⁾

2. 『주님의 말씀』

2008년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2차 시노드의 후속 교황 권고로 발표된 베네딕토 16세의 『주님의 말씀』은 앞서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자 정점인 성찬례’를 주제로 열렸던 제11차 시노드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 2007)의 연속이라는 문맥에서 읽힌다(『주님의 말씀』 2항). 따라서 말씀과 성찬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화의 신비라는 하나의 맥락 안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특징을 드러낸다.³⁶⁾ 이러한 특징은 5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요한복음 서문을 그 기본 골격으로 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³⁷⁾ 전체적인 구성은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인간의 응답과 해석(1부 하느님의 말씀), 교회와 하느님의 말씀(2부 교회 안의 말씀),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말씀 선포(3부 세상을 위한 말씀)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이 문헌은 『하느님의 말씀』 반포로부터 40여년 동안의 신적 계시에 관한 학문적, 사목적 이해지평의 확장과 교회의 체험 안에서 얻게 되는 필연적 반성을 반영하고 제3천년기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교도권적(magistrale) 가르침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 가톨릭 해석의 특징

35) 같은 책 참조.

36) 안소근,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성경 해석”, 24-25 참조.

37) 문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각각의 단락에 요한 1,1,14; 1,12; 1,18을 부제로 수록했다.

으로서 ‘성서 전통 안의 해석’과 ‘교회 전통 안의 해석’을 언급하고, 『주님의 말씀』 역시 ‘전통 안의 해석’을 강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님의 말씀』 전후로 성서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되는 두 개의 문헌 『그리스도 성경 안의 유다 민족과 그 성서』(*The Jewish people and their sacred scriptures in the Christian Bible*, 2001)와 『성경의 영감과 진리』(2014)로 이어지는 연구 방향에서도 교회가 일관되게 발전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서 해석학의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미 1980년대를 거쳐 오면서 철웅성과도 같았던 역사 비평적 통시적 연구방법론의 학문적 객관성에 대한 회의가 그 한계를 드러냈고, 일반 해석학의 도움으로 공시적 분석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최종형태의 본문 그 자체에 집중하자는 문학비평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의 역사 비평적 가설의 토대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오경 연구의 경우 더 이상 고전적인 문헌가설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밖에도 본문의 형성과 정경의 성립 그리고 본문의 읽기와, 다시 읽기 -특히 전례 안에서 행해지고 실천되는- 그리고 그 본문의 보존과 전달과정 등을 염두에 둘 때, 공동체의 전통은 본문의 형성과 전달 뿐만 아니라 해석의 기능까지 수행하며, 그러한 해석이 전달되는 본문 자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이 더욱 새롭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역사 속의 ‘읽기 전통’에 있어서, 유다교의 미드라쉬적 성경 해석, 단순한 번역으로만 볼 수 없는 고대의 번역본들의 해석 전통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부 전통에서의 성서 이해 등도 현재 본문의 형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재발견하게 된다.

해석학과 현대적인 역사-비평적 주석의 바탕위에 가공된 성서신학, 그리고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해석학과 성서신학의 전통적인 원리들 사이의 조화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 각각의 연구 영역 내에서 각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인지를 심화하고 명확히 해야만 한다. 현대의 연구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해석학적 논술들(formulazioni ermeneutiche)의 의미를 재고하지만, 그것

들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그들 역시 성서 본문들을 형성하는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그리고 문학적 과정 자체에 속하기 때문이다.³⁸⁾

3. 『성경의 영감과 진리』

『성경의 영감과 진리』가 눈에 띄는 점은 『주님의 말씀』과의 간격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 문헌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베네딕토 16세의 요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불어 문헌은 성경의 영감과 진리의 문제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언을 종합하려 노력한다. ‘계시 현장’이 권고하듯,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을 ‘한 분이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모두 다룰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노력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감과 진리에 대한 자기 증언과 그 맥을 짚어볼 수 있는 안내에 충실한 것은 이 문헌의 장점이다.

성서위원회는 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과 베네딕토 16세의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의 제목에서 착안하여 이 주제에 관한 논술의 맥을 설정한다. 두 문헌은 모두 ‘~의 말씀’이라는 형태의 제목을 가졌다. 이 때 ‘말씀’을 수식하는 속격(屬格, genitive)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는 주체적 속격(subjective genitive)이며 다른 하나는 객체적 속격(objective genitive)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를 촬영한 사진을 C라고 할 때, ‘C는 A의 사진이다’라는 진술도, ‘C는 B의 사진이다’라는 진술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 혹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문헌들의 제목은 ‘하느님(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도 ‘하느님(주님)께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성경의 영감과 진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총 세 장의 구성 중 제1부에서는 주체적 속격의 의미에서

38) G. Rizzi, 앞의 책, 96.

‘주님’ 곧 성경의 참 저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다룬다. 이를 두고 문헌은 『하느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고자, 근본이 되는 하느님의 두 행위인 계시와 영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³⁹⁾한다. 『성경의 영감과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 11항의 한계에 대해 “각주(2-4)에서 근본적이며 도구적 인과 관계에 근거한 전통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사람들과 하느님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성경의 본문들에서 인간 저자들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단서들을 식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다.⁴⁰⁾

한편 이 문헌은 이 연구의 한계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그것은 영감과 본문과의 관계다. 곧 위원회는 “성경 본문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논증할 뜻이 없다. 그것은 기초 신학의 과제이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진리에서 출발한다”⁴¹⁾라고 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연구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한다. 성경은 영감에 의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신앙고백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그 성경의 원 저자인 하느님과 인간 저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신적 기원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들은 어떤 증언들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방향이 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가리켜 성경 책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일컫고, 이것이야말로 이 문헌으로 정리될 ‘연구의 핵심’이라고 소개한다.⁴²⁾

위원회는 먼저 구약 성경 본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을 종합하기 위해, 본문의 기원에 대해 밝히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들을 선별하고 그 특징을 종합한다. 먼저 구약 성경의 증언들에 대한 결론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본문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39) 『성경의 영감과 진리』 5항.

40) 같은 책, 6항.

41) 같은 책.

42) 같은 책 참조.

탄생, 발전하면서도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꾸준히 증언함을 발견한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21항)이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본문들이 앞선 구약의 본문들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읽고 있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한다(50항 참조).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느님과 인간 저자의 관계의 풍부한 현상학”(51항)에 있어 영감, 통교, 기록과 신적 조력 사이의 구분할 수 없는 한계는 본질적이라는 것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하느님의 기록이라고 증언하는 단 하나의 예외인 십계명과, 하느님과 인간 저자의 통교에서 기록까지를 상세히 묘사하는 요한 묵시록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말씀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본문들이 동일한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본문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 믿음으로 계시의 말씀들을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동일한 계시의 다양성 그리고 일종의 ‘진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이미 전해받은 다양한 본문을 읽고, 재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한분이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통합하는 전통을 형성한다. “성경의 정경적 독서는 통시적이며 공시적 논리를 따르면서 계시가 발전되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56항).

‘영감’이라는 개념은 이 공동체가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증언들, 혹은 하느님으로 선포된 말씀들에 대해 그 참됨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성경의 한 책이 영감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것은, 그 책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책의 인간 저자들이 역사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부터 규범적인 것으로 받은 본문에 신앙의 진리를 표현하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57항). 그래서 본문의 진실성과 신적 기원의 기준이 되는 영감과 그 규범 곧 신앙의 규범으로 거룩한 본문들을 확정하는 정경화 과정을 약속하는 것으로 제1부를 끝맺는다.

제2부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객체적 속격의 의미인 ‘참되신 주님’ 곧 진리의 문제를 다룬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문헌이 발전시키는 주제는 구원의 문제이다.

서문에서 이미 “성경의 청취자들과 독자들이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 자신과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에 관하여 통교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기를 바란다”(4항)라고 권고하는데, 이는 『하느님의 말씀』 11항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서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곧 성경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일일이 제시하는 해답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으로서의 진리를 증언하는 말씀이다. 더불어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가리킬 뿐이다. 현대 그리스도교의 인격적 계시 이해에서, 성서 해석학이 마주하는 물음은 “진리가 무엇이오?”(요한 18,38)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인가?”이다. 따라서 가톨릭 성서 해석학은 사변적 이해의 대상으로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만남과 친교의 상대방으로서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한다. 문헌 역시 하느님 말씀과의 만남과 친교 그리고 다른 믿는 이들과의 친교 속에서 그 친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쇄신하고 심화하는 것을 제2부의 목표로 설정한다.

제2부의 첫 시작은 『하느님의 말씀』 11항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경의 무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진리’라는 용어의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룬다(63항 참조).

문헌은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이 수많은 논쟁 끝에 수립한 정식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에 대해서도 설명을 시도한다. 신학위원회의 결정에서 마지막 의안에서 ‘구원의 진리’(veritas salutaris)라는 표현과 ‘우리 구원을 위한 진리’(veritas nostrae salutis causa)를 반대했던 교부들의 주장은, 계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는 진술에서, 진리 개념을 단지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4회기의 총회에 상정되었던 ‘수정본문’(Schema IV)의 “*veritas salutaris*”(구원의 진리) 구문은 Schema III의 “*veritatem sine ullo errore*”(어떤 오류도 없이 진리를)이라는 문항을 수정한 본문이었다. 곧 이 과정에서 쾨니히(F. König) 추기경이 지적한 사항도 성서 가운데는 자연과학이나 역사적 측면에서 사실과 모순 혹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진리의 범위나 대상을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다.⁴³⁾ 『성경의 영감과 진리』 63항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성경의 진리가 단지 신앙과 도덕을 위하여 필요한 성경의 그 부분만 관련되고 다른 부분들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네 번째 초안의 *veritas salutaris*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해석을 배제하고자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은 이 문장을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진리를 가르친다는 해석을 피하라는 주문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성경 자체의 증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공의회가 이야기하는 ‘진리’의 구원론적 성격에 맞추어, 연구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될 것이라고 그 관심을 설정한다. 구약(66-83항 참조)과 신약(84-100항 참조)의 여러 본문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은 역사적, 문학적 다양성에서 출발한 성경의 진술들이 어떻게 하나의 경전에 모여지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수렴되어, 충만한 표현으로 일치된 진리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101항 참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충만하게 실현된” 하느님의 모든 말씀의 “다양한 전통들에 최종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하느님의 계시의 중심을 이루며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 결정적 표현에 이르는 하느님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이 진리”는 삼위일체의 친교이며, 그 친교 안에 사시는 하느님을 계시한다. 그리고 그 친교에 인간은 초대를 받는다(103항 참조). 이로써 『하느님의 말

43) 참조: H. Kruse 외, 앞의 책, 224; 『성경의 영감과 진리』 63항.

씀』 2항이 제시하는 계시에 대한 경문적, 구원 역사적 이해를 해설하는 9항의 최종 결론인 “삶의 친교, 그것은 곧 구원이다”라는 선언을 재확인한다.

제3부에서는 성경 자체에서 유래하는 두 가지 도전에 대해 해설한다. 그것은 성경의 진술들과 과학적 지식의 차이들에 관한 문제와 본문에 담긴 몇 가지 폭력적 표현과 차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도전들을 다루면서, 동시에 해석상의 문제에서 근본주의와 회의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IV. 하느님 말씀 해석의 실천적 적용과 제언

1. 성서 해석학의 과제

리피르(P. Ricoeur)는 종교적 체험이 교의로 확정되는 과정 중에 계시 자체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투명한 이성-에 비해 불투명하고 권위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이유를 분석한다. 곧 종교적 언어가 계시를 표현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신앙고백의 단계-교의 형성단계-교의 선포 단계) 구분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계시에 대한 진술의 확정 단계에서 종교 언어는 불투명하고 권위주의적인 면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종교의 언어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모두를 권위주의적 색깔로 물들인다. 결과적으로 “애초에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가르침(敎理)은 그 해석상의 역사적 의의를 잃고, 교도권으로부터 굳어진 형태로 주어진 정식(定式) 안에 갇혀, 거기 고정되어 버린다.”⁴⁴⁾ 그 결과 “‘계시진리’라는 말이 융통성이 전혀 없는 뜻으로 사용되어, 교의의 명제적 표현(命題的 表現)이 갖는 논리성(論理性)

44) P. Ricoeur, “啓示觀念의 解釋學 I”, 『神學展望』 65, 이병호 역, 1984, 86.

을 강조하게 되었고, 또 이런식으로 표현된 진리들을 기본적인 신앙 바로 그것과 같은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⁴⁵⁾ 종교 언어의 문제에 있어 “그 위치가 전도되어, 결론이 아닌 원칙이 된다거나, 종속관계가 아닌 주인 자리에 놓일 경우의 해악”⁴⁶⁾에 대한 그의 비판적 성찰은 신학, 특히 계시의 원천을 다루는 성서 해석자가 고려해야 할 점이다. 계시를 철학적 명제의 틀 속에 집어넣는 학문적 오류는 결국 역동적이고 초월적·신비적인 하느님의 역사를 존재론·인식론의 틀에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한다. 성서의 해석은 감추어진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이해 지평의 확장과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석의 과정을 감추어진 신비를 유한하고, 가변적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과정으로만 단순화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의 본래 의도인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오히려 그러한 해석 활동을 통해 동시대의 언어적 한계를 확정하고 폭로하는 데에 그칠 수 있다.

성서 해석학은 ‘진리’를 논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도, 그리스어에서도 ‘진리’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현대인들이 흔히 연상할 수 있는 ‘지식탐구’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는 히브리어 ‘에메트’(‘ēmet), 혹은 때때로 ‘에무나’(‘ēmūnah)에 상응하는 말로, 두 명사 모두 ‘굳세다, 굳건하다, 지속하다’는 뜻의 동사 어근 ‘아만’(‘mn)에서 파생된 말로서 문맥에 따라서 ‘굳셈’, ‘확실’, ‘지속’, ‘진실’, ‘믿음’, ‘신앙’, ‘신의’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다’, ‘믿다’는 뜻도 역시 같은 동사에서 파생된다. 엄밀히 말해서 현대인들의 개념에 상응하는 명사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례 중에 ‘주님(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라는 외침에 대한 회중의 응답 ‘아멘’은 ‘그 말씀은 변치 않고 진실하십시오’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그리스어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는 어원

45) 같은 책.

46) 같은 책.

론적으로는 ‘감추어지지 않은 것’을 뜻하지만(‘계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말이기도 하다), 신약에서는 유다교의 영향으로 에메트의 특징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교에서 진리는 ‘하느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하느님은 계시를 통해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이레네우스에게 ‘진리의 규범’은 곧 ‘신앙의 규범’이기도 했다.⁴⁷⁾

현대 해석학에서 저자와 본문, 독자의 고유한 역할과 관계를 모두 중시하고 본문과 저자, 독자와의 두 관계 모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성서 해석학 역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죽은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을(2코린 3,6 참조) 향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성서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건넨 다음 말씀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는 성서학자들이 지녀야 하는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서에 앞서고, 성서를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 중심에 단지 책 한 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살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것입니다.⁴⁸⁾

2. 신학교육과 사목

현대 가톨릭교회의 계시이해에 따라, 계시를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규정할 때, 교회의 전례와 사목 현장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목자들과 그 사목자들과 교리교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육에서 성서 연구와 묵상의 필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의 경우 근래 20여년 동안 ‘성

47) I. de la Potterie, “진리”, 『새로운 성경신학 사전』 3, P. 로싸노 외 편, 바오로딸, 2011, 2172 참조.

48) Franciscus PP., “Ad sodales Pontificiae Commissionis Biblicae(2013.4.12)”, AAS 105, 2013, 438.

서 교육'에 대한 신자들의 기대와 수요는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그에 대한 사목 프로그램과 교재들, 연구서들의 발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학문'으로서의 성서 연구와 일상의 믿음살이 안에서의 하느님 말씀을 살아감 사이의 위상 차이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도서관과 연구실의 성서 연구가 연구자들만의 지적 호기심과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만 단절된다면, 말씀에의 봉사라는 교도권의 임무는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물론 학자들의 연구와 교육이 곧바로 교회의 교도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적 성과는 교도권을 통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들에게 골고루 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 10항은 계시와 교도 직무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서와 교회 교도직은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셋 모두 함께 고유한 방식대로 성령의 활동 아래 영혼의 구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같은 문헌 23-24항은 학문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서 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의 연구를 장려한다. 자신의 연구가 자칫 자기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교회에 돌아갈 봉사의 열매도 없어질 뿐더러 자신이 쌓아올린 독단과 아집의 벽에 갇히기 십상이다. 따라서 학문적 영역에서 신학 연구자 사이의 연구 교류와 그 성과의 사목적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느님 말씀의 경청자'인 교회는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그 말씀을 자신있게 증언할 힘을 얻게 된다. 우선은 신학교의 교원들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전공 분야별 연구 교류, 학회 활동, 능력이 검증된 평신도들이나 수도자 교원임용 확대, 더 나아가서는 학교 간의 교환 수업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구나 수도회 모두 성소자 감소의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현실은 과잉 공급된 신학교의 구조조정도 심각하게 고

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치닫고 있다.

3. 성서와 영성생활

성서 해석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늘 경계하듯, 균형잡힌 학문 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성서에 대한 주관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성주의와 부정적 의미에서의 영성주의가 지배하는 성서 해석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의 성서 교육과 말씀 봉사자 양성은 이러한 위험에서 교회의 고유한 성서 해석의 실천을 위해 필수적인 사목적 요소이다.

사목 현장에서 복음 선포의 가장 고유한 사목자의 직무는 강론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에서 강론자의 사명을 가리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곧 주님이 마음과 그분 백성의 마음을 결합시키는 일’(143항 참조)이라고 정의한다. 더불어 강론자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이다. “강론 준비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146항). 그리고 그 준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149- 153 참조), ‘백성의 말을 듣는’(154-155항 참조) 일로부터 시작된다. “성서에 관한 지식을 전해줌과 동시에 성서에 대한 사랑을 불어 넣어 주도록 해야 할 것”(『성령의 영감』 53항)이라는 비오 12세 교황의 권고는 비단 신학교 교육뿐 아니라 말씀을 해설해 줄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와 사목자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교회의 공식 문헌들을 통해 가톨릭 성서 해석의 특징과 방향을 짚어봤다. 공의회가 이전까지 대두되었던 현대적 성서 해석 방법론의 수용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계시에 대한 인격적·그리스도 중심적·구원론적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면, 그 이후의 문헌들은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스스로가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설하여 공의회의 정신을 구현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시에 대한 공의회의 가르침은 단지 성서 해석학 분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학 전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성서 해석의 과정은 사진 인화의 과정에 빗대어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은 자신의 모습을 촬영자에게 드러내신다. 촬영자의 필름에는 다양한 풍경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분과 세상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분과 그 말씀이 선포되고 경청되는 피조물과의 만남이 남겨진다. 필름은 암실에서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현상하게 된다. 이 때 현상액과 정지, 정착, 수세 등 다양한 처리 과정을 통해서 필름에 맺힌 상이 실상으로 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과 다양한 전송 과정을 거친 하느님과 세상에 대한 진술들은 본문이라는 형태의 상으로 보존되어 왔다. 성서 해석자는 이러한 본문을 사진가가 필름에 담긴 정보를 인화지에 인화하여 그 상을 실사(實寫)로 드러내듯,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본문에 담긴 원래의 피사체를 재현한다. 본문에 대한 해석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 속에 담긴 정보와 독자와의 ‘만남’이 가능하게 돕는 것, 그것이 성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은 또한 새로운 전통과 의미를 창출해낸다.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읽을 때’(『하느님의 말씀』 12항 참조) 성령께서 해석자의 계시에 대한 이해 지평을 확장해 주신다. 이는 지금까지의 통시적 연구 결과들이 확인하는 바이기도 하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활동은 곧 시대마다 새로운 번역과 새로운 통찰로 인화지에 맺히는 계시의 상(像)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준다. 본문의 해석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 속에서 계속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새롭고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게 될 것이다.

성서위원회의 가장 최근 문헌인 『성경의 영감과 진리』가 재확인

하듯,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천막을 치신’(요한 1,14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친교에의 참여를 통한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친교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부르심은 만남과 친교를 향해있다. 하느님과 인간, 인간 상호간의 친교는 만남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대화를 전제로 한다. 베네딕토 16세의 다음 연설은 그러한 친교에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그 친교의 잔치에 초대할(마태 22,8-10 참조)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인간이 자신의 원천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의 공동생활은 어려워지며, 결국 사회는 편린으로 남는다. 여러분은 서로 일치하고,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서로를 도와 주님의 열렬한 증인들이 되게 하십시오. 서로 일치하되, 갇히지는 마십시오. 겸손하되, 겁먹지는 마십시오. 단순하되, 쉽진 마십시오. 사려 깊되, 복잡하진 마십시오. 모든 이와 대화하되,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⁴⁹⁾

* 투 고 일: 2014. 10. 17
수 정 일: 2014. 12. 8

심 사 일: 2014. 12. 3
게재확정일: 2014. 12. 10

49) Benedictus PP. XVI, “Incontro con i giovani in piazza Matteotti a Genova: Discorso di sua Santità Benedetto XVI(2008.5.18)”, http://www.vatican.va/holy_father/benedict_xvi/speeches/2008/may/documents/hf_ben-xvi_spe_20080518_genova-giovani_it.html(검색일: 2014.10.5).

참 고 문 헌

1. 교회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라틴어 대역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교황청 성서위원회, “교회 안의 성서 해석”(L'interpretation Des Textes, 1993),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 정태현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193-288.

_____, 『그리스도교 성경 안의 유다 민족과 그 성서』(The Jewish people and their sacred scriptures in the Christian Bible, 20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_____, 『성경의 영감과 진리』(Ispirazione e Verità della Sacra Scrittura, 2014), 박영식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베네딕토 16세,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2. 단행본

안소근,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성경 해석”, 『사목연구』 30, 2012, 22-50.

_____, “신앙의 유비”, 『가톨릭 신학과 사상』 72, 2013, 140-176.

한민택, “‘신앙의 합리성’ 연구에 있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현장』의 기여”, 『이성과 신앙』 53, 2012, 5-58.

Alberigo, G. 외 편, 『보편 공의회 문헌집 3권: 트렌토 공의회·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손희송·이경상 역, 가톨릭출판사, 2013.

Benedictus, PP. XVI, “Incontro con i giovani in piazza Matteotti a Genova: Discorso di sua Santità Benedetto XVI(2008.5.18)”, http://www.vatican.va/holy_father/benedict_xvi/speeches/2008/may/documents/hf_ben-xvi_spe_20080518_genova-giovani_it.html(검색일: 2014.10.5).

_____, “Ad Plenariam Sessionem Pontificiae Commissionis Biblicae (2009.4.23)”, AAS 101, 2009, 378-382.

- Caprille, G., “Tre emendamenti allo schema sulla rivelazione: appunti per la storia del testo”, *La Civiltà cattolica* 117/ I, 1966, 214-231.
- Denzinger, H. / Hünermann, P. ed.,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edizione bilingue, Bologna: EDB, 1995.
- Franciscus, PP., “Ad sodales Pontificiae Commissionis Biblicae(2013.4.12)”, AAS 105, 2013, 438-440.
- Grech, P., “해석학”, 『새로운 성경신학 사전』 3, P. 로싸노 외 편, 바오로딸, 2011, 2439-2482.
- I. de la Potterie, “진리”, 『새로운 성경신학 사전』 3, Rossano, P. 외 편, 바오로딸, 2011, 2164-2172.
- Kruse, H. 외, “계시 현장”,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3, 스트라렌, H.V. 외 편, 현석호 역, 성바오로출판사, 1991.
- Ricoeur, R., “啓示觀念의 解釋學 I”, 『神學展望』 65, 이병호 역, 1984, 85-105.
- Rizzi, G., *Leggere la Bibbia con la Tradizione*, Bologna: EDB, 1999.
- Sinodo dei Vescovi, “XII Assemblea generale ordinaria: Elenco finale delle proposizioni”, http://www.vatican.va/roman_curia/synod/documents/rc_synod_doc_20081025_elenco-prop-finali_it.html(검색일: 2014.10.5).
- Stock, K., “I cento anni della Pontificia Commissione Biblica”,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pcb_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21030_stock_it.html(검색일: 2014.10.5).
- Valente, G., “Modificare la bozza sulla divina Rivelazione”, *La Stampa: Vatican Insider*, <http://vaticaninsider.lastampa.it/inchieste-ed-interviste/dettaglio-articolo/articolo/concilio-18768/>(검색일: 2014.10.12).
- Wicks, J., “Dalla *Dei Verbum* al sinodo sulla parola di Dio: *Verbum Domini* n. 3”, *Commento alla Verbum Domini*, a cura di Aparicio, V.C. / Pié-Ninot, S., Roma: GBP, 2011, 33-39.

☐ Abstract ☐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d the Perspective of Truth in the Catholic Church

Lee, Jung Suk

The Second Vatican Council, with its new perspective of revelation, has enormously influenced all of Catholic theology as well as Catholic biblical hermeneutics. This article explores the criteria and the direction of biblical hermeneutics that the Catholic Church has been suggesting on the basis of the new perspective of revelation since the Second Vatican Council.

First of all,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perspective of *Dei Verbum* (*Dogmatic Constitution on Divine Revelation*)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is that revelation is God's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how the Catholic Church explains those themes related to revel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probes the controversial issues that arose during the Council: the relationship of the Holy Scripture and Holy Tradition, and the infallibility of the Holy Scriptur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uncil Fathers discussed and defined these controversial issues and how they developed their understanding on these issues in the post-conciliar documents.

Thus,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Dei Verbum* and the official post-conciliar documents of the Catholic Church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the Church*(1993), *Verbum Domini*(*The Word of the Lord*, 2010), and *The Inspiration and Truth of Sacred Scripture*(2014). This diachronic study of these documents verifies that the

Church clarifies hermeneutical issues, which *Dei Verbum* did not fully explain, and that the Church reaffirms and refines the direction of biblical interpretation which it supports. While *Dei Verbum*(*Dogmatic Constitution on Divine Revelation*) was drafted by dogmatic theologians and supported by the Fathers later, the post-conciliar documents, except for *Verbum Domini*(*The Word of the Lord*), were the accomplishments of the Pontifical Biblical Commission composed chiefly of biblical theologians. Accordingly, those documents, by studying the biblical texts primarily through the biblical hermeneutical approach, affirm what the official Church documents teaches, and they als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Church's new perspective about revelation by suggesting what was found through the biblical-theological approach.

Finally, on the basis of this biblical hermeneutic criter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llenges for biblical hermeneutics, and explores the Church's tasks as the new interpreter of "living God's Word," the clear messenger, and the servant of Holy Tradition.

*** Key Words:** Catholic, Hermeneutics, II Vatican Council, *Dei Verbum*, Tradition, Inerrancy, PBC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과 진리 이해”에 대한 논평

김 해 윤

(수녀, 미리내성모성심 수녀회)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과 진리 이해’라는 제목 하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도권이 발표한 성서 해석 관련 공식문헌을 망라해주시고, 이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이 어떠한 원리에 정초하여 성장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개진해주신 발표자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논평자는 해석(학)과 관련된 일체의 복잡한 작업을 일종의 ‘거리 좁히기’로 생각하고 있다. 본문이 소개하는 사건과 이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증인들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거리, 사건의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을 문서화한 기록자(저자)들 사이의 거리, 본문의 저자와 그 수신인들 간의 거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본문과 오늘날 독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거리 등, 각 대상들 간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간극과 거리들은 지속적으로 해석적 작업을 요청하게 하는 필연적 요인들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석의 주체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는 해석의 결과와 그 내용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한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절대적이고 일의(一意)적인 이해가 지양되고, 다의적 해석과 주관적 이해가 정당한 가능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존재에 대한 이해는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주관적이다 못해 심각하게 모호한 상태가 중심의 견고한 틀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다원화-중층화되어가는 상대적 해석들의 산만함 안에서, 가톨릭교회는 ‘신앙의 유산’에 근거한 교회적 전통을 교도권의 고유한 해석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이를 정리하자면 ① 우선 성경은 하느님(성령)의 감도로 작성된 본문임을 신앙의 언어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고 ② 이 성경의 기록이 교회 안에 전수되고 기록된 과정 역시 성령의 작용으로 발생했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③ 오늘날 이 기록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과정 역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라야 그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그분이 직접 저자로 활동하신 문헌임을 고백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진리’임을 고유하게 인정하며, 성경의 기록과 전수가 교회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그 해석의 자리 역시 ‘신앙의 규범’(regula fidei) 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화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교도권의 성서 해석인 것이다.

이 발표문은 이러한 내용을 교회의 공식 문헌들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성서 해석’만을 따로 구별시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성서 해석과 관련된 연구들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가톨릭교회의’, ‘가톨릭교회를 위한’ 성서 해석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발표문이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성서 개별 본문의 주석에만 익숙한 성서 전문가들에게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교황청의 문헌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의적 언어로 표현되는 성령의 문헌들을 좀 더 쉽게 소개해주고 있기에, 본문의 언어적-역사적 분석과 접근에만 익숙한 논평자에게도 유익한 독서가 되었다.

그 밖에도 긍정적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 다소 불분명했던 성경의 몇가지 속성을 객관적으로 대상화시켜 확인해 준 점이었다. 예를 들어 “성전(聖傳)의 성격을 단순히 성서에 대한 해석적 기능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성서와 더불어 계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가 공의회의 논쟁이었음을 상기시킨 후(45쪽),

‘성전을 마치 성서 밖에 알려진 선언들의 모음집 정도로 치부하는 온갖 사유들은 결국 그리스도교적 관점이 아니’라는 교회의 입장을 확인시켜 준 점(48쪽), 성전에도 구원의 진리와 윤리규범이 보존되어 있음을 천명한 교회의 입장을 다시 짚어준 점(46쪽), 성경과 성전을 계시의 ‘두 원천’으로 표명해온 관습을 수정하고 이들을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나온 것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입장을 소개해 준 점(44-45쪽), 성전을 사도 전승과 교회 전승으로 구분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항을 다시 언급함으로써(49쪽), 성전과 성경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호함을 정리해 준 점이 그러하다.

성경의 무류성 문제에 있어서도 논쟁의 관건은 ‘성령의 영감이 무류성을 보증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류한 진술의 외연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음을 알려 준 내용이 좋았다. 곧 성경의 무류성을 신앙, 도덕의 사항에만 한정시키느냐, 구원과 관계없는 범위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공의회 교부들 사이에서 얼마나 진중하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좀 더 새롭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50-52쪽).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해 보겠다.

1. 발표문의 본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첫 부분에서는 계시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을 소개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후 발표된 성서 해석 관련 문헌들을 개진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성서 해석의 실천적 적용과 제언이 제시되는데, 무엇이 진정 성서 해석학의 과제인지 연구자의 견해가 간략히 피력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2월 22일 교황청 성서위원회가 발표하고 한국어로는 7월 10일에 번역되어 출간된 문헌 『성경의 영감과 진리』(*Ispirazione e Verità della Sacra Scrittura*)는 교회의 최근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동시에, 지금까지 소개된 성서해석의 원리를 집대성한

문헌이라고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입장은 발표문 서두에도 잘 드러나 있다. 『주님의 말씀』 19항이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 11항에 대한 일종의 보완임을 제12차 시노드의 건의안을 인용하며 강조하였고, 『주님의 말씀』 19항이 『성경의 영감과 진리』 1항에 다시 재천명됨을 인용하여 부각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헌은 ‘영감’과 ‘진리’라는 가톨릭 성서 해석의 두 원칙을 가장 엄격하고 독창적으로 전개한 책이기에 발표자 연구의 1차 자료로 선정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문은 이미 50년 전에 개최되어 우리에게 충분히 익숙한 공의회 문헌 『하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서,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에 대한 최근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2. “해석의 주체를 가톨릭교회로 제한”(38쪽)한다고 전제하여 연구를 시작한 것이 눈에 띄는데, 아마도 가톨릭교회의 입장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전제인 듯하다. 그러나 연구의 주제와 범주 제한은 연구 자체의 논리성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장치적 포석으로 존재할 때 그 순기능을 갖기 어렵다. 해석학의 문제들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해석의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갈등과 충돌이다. 누가 해석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대립이 해석의 결과를 조정하기 때문인데, 해석의 다양한 주체들로 인해 초래될 수밖에 없는 다원적-다의적 주장들은 결국 ‘진리가 무엇이오?’라는 이 학술발표회의 질문을 필연적으로 산출시킨다. 대립적 기재들로 상호 꺾히되거나 무례하게(때로는 무리하게) 파괴될 수 있는 타인의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해야 하는지, 갈등과 대립의 충돌을 양산하며 전개될 수밖에 없는 해석의 과제를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고민하고 마주해왔는지, 혹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면 학계는 어떤 학문적 성실성과 용기로 그 해결점을 찾게 도와야 하는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발표문에서는 다소 호교적으로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 원칙-곧 성경 전체 내용과 일체성, 전체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신앙의 유비-을 강조하는 부분이 주조를 이룬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그동안 가톨릭교회가 실천해온 공존과 협력의 모습을 다소 약화시키는 시각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하느님의 말씀』 12항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에서, 공의회 of 조항은 분명 성경의 저자들-영감받은 인간 저자들과 하느님이라는 두 주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는 오로지 하느님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이를 기록한 인간 저자들’에 대한 존중으로 그 가치를 표명한 공의회 of 입장을, 정확히 객관화시킨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43-44쪽).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을 소개하면서도, 성경은 우선적으로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선사된 하느님의 말씀인 것으로 규정하는데(54-55쪽), 지당하고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사된 은총이며, 우선적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결코 배제하면서 제작된 책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교회를 위한, 교회를 통한 시선을 강화하는 작업도 매우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그들만의 언어와 배타적 이해를 통해 성경을 세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 작업의 목적과 과정이 정녕 복음적이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입장만을 ‘독창적 원칙’이라는 명분하에 부각시키다 보면, 발표자도 표현한 바와 같이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절 『하느님의 말씀』 반포 과정에서 겪어야했던 지난한 과정들, 곧 “비가톨릭 진영을 비롯한 성서학계의 견해, 현대 성서 해석학이 내놓는 결과들에 대한 수용과 자세에 대한 태도, 서로 다른 신앙 전통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수용들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려”(41쪽) 애를 쓴 노력들을 축소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상호 대립과 외적 차별화를 조장하고, 절대 진리

를 독점함으로써 해석의 일의(一意)성만을 주장하고 감독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대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자세로 응답해온 가톨릭적 입장이 충분히 드러났더라면 이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가 가톨릭교회의 주석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듯하다.

그러므로 논평자의 생각에는

1) 교회문헌들 자체에서 발견되어지는 수렴과 융합에 대한 입장을 치우치지 않은 관찰자적 시각으로 객관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에는 역사 비평적 연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내용은 방법론 자체에 대한 차별적 비판에 목적이 있지 않고, 지나치게 치우친 현대 주석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문헌의 34항에서는 “현대의 역사 비평적 연구를 사용한 데에서 얻어진 긍정적 결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연구가 신학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35항에서는 학문적 방법론과 신앙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구분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36항에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야말로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피력한다.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적 입장을 경계하려면 이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성인 이 책이 하느님의 계시를 담은 경전임을 잊지 말아야 함이 강조된다.

『교회 안의 성서 해석』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반복된다. 교회는 학문적 노력과 결과를 결코 경시하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언어, 역사, 문학 등에 관한 학문적 성과와 도움을 꾸준히 장려하고 성서 해석 분야의 여러 방법론과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지나친 이성적 분석과 지나친 신앙적 고백의 간극을 결코 양보할 수 없고 소통될 수도 없는 대립기재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은 오히려 겸손한 신앙의 언어를 필요로 하고, 신앙은 이성을 필요로 한다는

차원에서 서로를 소외시킬 수 없는 상보성(相補性)을 지님을 인식하고 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해석적 작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2) 교회 문헌이 발표되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통사(通史)적 시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님의 말씀』은 기존의 문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경 해석의 본래적 자리가 교회의 삶임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강조는 이 문헌이 나오게 된 사회-시대적 흐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나 『주님의 말씀』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성서 연구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분석-비판적인 성향으로 진행되고, 급기야 이성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된 일부 성서 연구들이 신학과 분리되고 대립되는 상황까지 치우침을 우려해서 나오게 된 반향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논평자는 다원적 주체들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텍스트’라고 본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접근할 때 진리의 기준을 자아 안에서 정초하려는 주관주의, 혹은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강한 신앙고백적 언어로만 사건을 접근하는 비논리적 신앙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논평자는 ‘텍스트에 대한 주석적 행위’와 ‘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해(해석) 행위’를 구별했으면 한다.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동의할 수 있고 최종적인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는 ‘텍스트에 대한 주석 행위’이다. 이 단계에서는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허락되고, 철저한 객관적 접근을 통한 진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본문을 대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전(前)이해적 시각’은 다양한 주석 방법론들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 텍스트에 대한 ‘전이해’가 ‘텍스트에 대한 주석 행위’를 통해 수정되거나 심화되면서, 편견과 선입견이 해체되고 텍스트의 고유 의미를 방해

하던 주체의 환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 그 다음은 ‘이해(해석)의 단계’이다. 이때는 각자의 신원에 따른 선택 혹은 주관적인 이해가 발생해도 좋다. 아니 발생해야 한다. 그래야 각자의 주체적 중심과 결단을 전제로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관적 이해의 과정 중 가톨릭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작용’이라는 가치에 대한 고백이며 이를 식별하는 권위는 ‘공동체적 지평’과 ‘교회적 전통’임을 강조하는 것이 교도권이 중요시하는 해석의 원리가 아닐까 한다.

3. 간단한 질문이다.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은 성서 해석의 ‘방법론’(method)과 ‘접근’(approach)을 소개하면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발표문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55쪽), 사실 성서 해석 ‘방법론’과 ‘접근’은 구별되면서도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법론과 접근이라는 이 두 개념의 의미를 조금 더 보완해주시면 부족한 논평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논평에 대한 답변

이 정 석

(신부, 전주가톨릭신학원)

먼저 꼼꼼하게 논평을 해주신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논평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발제한 내용에서 간과되거나 모호한 부분들과 한계를 지적해줌으로써 이 주제를 더욱 보완해주었고, 계속 진행되어야할 연구와 정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짚어 주었다.

다만 제한된 지면의 한계 내에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했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하기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 대상이 되었던 주제는 간략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여러 문헌들과 그 문헌들의 표현 방식들 이면에 있는 복잡한 이해와 배경들을 들여다보면 그리 쉽지 않은 주제이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하다. 물론 그러한 다양한 논의들, 글감들의 경중을 따지고, 정말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선별하여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글 쓰는 이의 작업이라고 할 때, 다소 부족하고 애매한 표현이나 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거나 누락된 세부 사항들로 인한 부족함과 어려움들은 당연히 이 글의 한계이고 또 그 작성자인 발표자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논평과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이 정답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발표자가 이해하는 한에서 다음과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

1. 우선 마지막 질문인 성서 해석의 ‘방법’과 ‘접근’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한 『교회 안의 성서 해석』 자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방법’과 ‘접근’을 구분했는지는 발표자에게도 의문이다. 또 이러한 구분은 성서 해석학에서만 문제도 아니고, ‘method’, ‘approach’, ‘technique’, ‘mode’ 등등 비슷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발표자가 이해하는 바로, 해석행위의 방향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방법’으로도 ‘접근’으로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성서위원회의 문헌 구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오래된 연구 방법론인 역사비평과 문학비평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뒤늦게 개발 혹은 재발견, 연구, 적용되고 있는 여러 ‘접근’ 방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경접근, 사회학적, 심리학적, 여성신학적 접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이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비평 방법론은 엄밀한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곧 성서학 혹은 성서 신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체계의 내적 구조를 설계하고, 주어진 본문의 구성 방식을 해체,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성되었는지를 역사적, 문학적 요소들을 토대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텍스트의 기본 구성 요소인 언어와 역사, 문헌, 문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의 도움을 토대로 성경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분석하여 그 내적 구성 원리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설명하는 총체적 과정과 그로부터 얻은 여러 결론들을 내놓는 작업, 다시 말해 성서 텍스트에 대한 내적 구성 원리, 혹은 설계도면을 제시함으로써 텍스트 전체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주된 작업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학문의 발전 단계에서 기존의 설계도면에서의 몇몇 오류들이 발견되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텍스트가 이루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에 대한 기본 구성 원리나 골격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 산이 어떤 지형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접근’은 ‘방법’이 대상으로 다루는 텍스트를 대함에 있어, 그 내적 원리보다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드러나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 텍스트의 현상학적 의미를 추적하는 데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곧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정상에 오르기 위한 다양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럿일 수 있고, 하나의 길만을 고집할 수 없듯이 다양한 접근 방식은 산을 마주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산을 만나고 즐기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2. 『계시 헌장』 12항이 제시하고, 이후의 문헌들이 확인하는 바,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의 세 원칙은 산행에 빗대어 말한다면 일종의 베이스 캠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스 캠프의 역할은 등반자와 함께 산행에 필요한 준비를 계획하고 좀 더 멀찍이 떨어져 등반자의 산행을 돕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교회 내 성서 해석의 세 가지 원칙과 교도권의 개입은 등반자의 자유 등반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중에 길을 잃지 않고 헤메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진리의 대양을 항해하는 항해자에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항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교도권의 역할일 것이다. 발표자의 연구의 주요 텍스트들이 교도권에서 발표한 공식 문헌들이다보니 일견 보수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발표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공의회가 제시하는 ‘계시’에 대한 인격적 이해는 진리를 단순히 ‘인식’의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칫 스스로가 ‘진리’가 되고자 하는 유혹에 대한 경계일 것이다.

성서의 해석자는 진리 자체가 아닌 진리에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진술과 해석은 결코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종 해석 주체의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때 진리를 독점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충돌할 때 진리 자체에 대한 대의는 사라지고,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한 논쟁과 갈등만 양산할 수도 있다. 또 같은 신앙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그에 따른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가톨릭 성서 주석가라고 해서 똑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에의 봉사’라는 고유한 직분과 그 한계에 대한 동의 없이는 자칫 스스로 고립되어 길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역시 대화와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각자가 추구하는 하나의 진리를 해석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또 대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경청이 어정쩡한 타협을 의미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화는 대화에 임하는 각자의 고유한 사상과 고유한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간낭비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한에서 필자의 연구는 성서 해석에 대한 교회의 공식 문헌들을 통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제 자신이 교회에 몸담고,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해석 작업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칫 가톨릭교회가 실천해온 교회 밖의 해석자들과의 ‘공존과 협력의 모습’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해석을 둘러싼 교회의 모든 활동을 논하기에는 지면도 제한적이고, 본래의 주제를 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3. 『주님의 말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 중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다. 이후의 문헌들이 각각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지만 어느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종속적이고, 또 그에 대한 해설의 성격이 짙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는 발표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티클 등을 통해서 이미 『주님

의 말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있었고, 가장 최근 문헌인 『성서의 영감과 진리』에 대해서는, 성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문헌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또 한국어 번역을 하신 가톨릭대학교의 박영식(요한) 신부님께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문헌에서 다 표현되지 못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발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라도 조언을 구했다라면 발표문을 통해서라도 더 나은 이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다.

4. 해석의 과정을 ‘거리 좁히기’로 보든 ‘짜 맞추기’로 보든, 중요한 것은 해석자가 텍스트를 매개로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Verbum)과 독자의 만남을 촉진하는 것에서 그 역할을 완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해석자, 혹은 해석의 제 방법론과 이론들이 만남 자체를 주도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만남을 주선할 뿐이다. ‘Lectio Divina’가 제시하는 ‘contemplatio’가 독자와 본문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때, 그것마저 해석학의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해석학의 역할은 ‘Lectio’를 돕기 위한 수단이다. 다음 단계인 ‘meditatio’, ‘oratio’, ‘contemplatio’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석학의 역할은 축소되어야하고 오히려 독자는 해석학의 도움으로 더 독립해, 스스로 ‘말씀’과의 만남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강요된 신앙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해석 역시 강요될 수는 없다. 해석학과 그 활동이 만남의 주체인 본문과 독자를 강제한다면 해석 활동 자체가 진리의 자리를 꿰어차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발표문의 결론에서 “모든 이와 대화하되,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라는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인용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만남의 주체는 해석의 최종 주체이기도 하다. 진리와의 만남에서 다른 이의 도움이 유용하긴 하지만, 결국 진리를 대면하고 그 만남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해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어야 한다.*